

혁! 개정 교육과정에 이런 것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안'이 지나치게 왜곡된 가치관을 강제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안은 동성결혼과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므로 교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즉시 중단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1999년 발표된 7차 교육과정 이후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기보다 필요할 때 부분 개정하고 있다. 개정 교육과정으로 부르는 이유이다. 2007, 2009, 2015 등 연도로 구분하며, 이는 새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해가 아니라 교육부가 고시·발표한 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초등학교는 2024학년 1·2학년, 중·고등학교는 2025학년 신입생부터 차례대로 반영된다. 교과서도 같은 해, 같은 학년부터 바뀌게 된다.

최근 발표된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서 일부 성(性)과 관련된 용어와 표현에 교계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온라인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2022 교육과정 총론과 각 교과별 시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접수하였다. 1차로 접수된 7800여 건의 의견 중 도덕, 보건, 사회 등 여러 교과에서 성과 관련한 수정·보완 요구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계 역시 동성애자를 정당화하고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대부분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양성평등'을 50여 가지 제3의 성을 포함하는 '성평등'으로 바꾼 점이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낙태를 재생산권이란 이름

으로 정당화하고, 동성애자(성소수자)를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회적 소수자로 여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중학교 기술가정 교육과정 시안의 경우 "관계적 측면의 성 개념과 성인지 감수성을 인식할 수 있는 성가치관을 함양하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 "정상가족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유형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가지도록 하여, 다름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한다"고 표현했다.

고등학교 통합사회2 교육과정 시안에서는 사회적 소수자 차별 등 인권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는데, 사회적 소수자의 사례로 장애인·이주 외국인 등과 함께 동성애자를 포함했다. 여기에 대해 "동성애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한 자기 선택으로 말미암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기만하고 있다"면서 "동성애자 등의 성소수자가 사회적 소수자라면, 동성결혼 등은 당연히 합법화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회와 기독교 교육계는 편향된 이념에 근거한 내용, 특히 성(性)에 대한 부분을 수정해 줄 것을

촉구하였는데, 그 주장은 다음과 같다.

편향된 이념에 근거한 내용, 특히 성(性) 관련 내용들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은 젠더(gender), 섹슈얼리티(sexuality), '보호되지 않은 성' 등 편향된 개념과 용어를 현실화함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에게 왜곡된 성 의식을 강제하고 있다. 공청회 이후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안을 내놨지만, 소수 편향된 집단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교과 내용에 교묘히 포함하고,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제한시키는 등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회의 우려를 지우기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양성평등에 기반한 교육을 지지하며, 편향된 성(性) 가치관으로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을 왜곡시키고, 건강한 사회를 파괴시키는 일체의 시도들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함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이러한 성교육을 강제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삶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할 뿐 아니라 신앙과 양심 그리고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일임을 분명히 천명하며, 왜곡된 성 관련 내용의 전면 폐기와 편향된 연구진 교체를 엄중히 요청한다.



수학에 강한 나라, 인도

미항공우주국 NASA 과학자의 36%, 미국 전체 과학자의 12%, 미국 전체 의사의 38%, 마이크로소프트 소속 엔지니어의 34%가 인도인이다. 미국 실리콘밸리는 세계 IT 산업의 중심지이다. 이곳에서도 수많은 인도계 및 인도인들이 진출해 IT산업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IT강국 인도의 원동력을 교육방법으로 보고 있다.

IT와 수학은 매우 밀접한 관계로 이루어졌다. 수학은 모든 과학의 근본으로 IT는 모든 첨단과학기술이 접목된 결정체이다. 개발에 필요한 알고리즘을 짜는 것과 수학 문제를 푸는 원리와 과정은 유사하다.

0의 개념을 발견, 십진법과 자릿수의 기본 개념을 확립한 것이 고대 인도인이며, 현대에서는 천재 수학자 '라마누잔'같은 걸출한 석학도 배출했다.

■ 인도인들의 수학교육

인도인들은 4살에 유치원에 입학하고 6살에 초등학교에 진학한다. 유치원에 입학하면 제일 중요시하는 주산 교육을 마스터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수학 시험을 볼 때도 연습장이나 펜 없이 모두 암산으로 계산한다. 인도 학부모들의 교육열 또한 높아 집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암산, 수학문제 수수께끼를 내고 푸는 것이 흔하다고 한다. 인도에서는 객관식 시

험이 없다. 인도의 대표수학 교육은 '베다수학'이다. 베다수학은 주관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토론을 통한 원리와 개념을 현실에 적용하고 확장 방법을 찾는 것이 인도의 흔한 수학시간이다.

베다수학은 하나의 문제에 하나의 풀이과정이 아닌 다양한 풀이과정, 즉 다양한 알고리즘과 계산체계를 배움으로써 기존에 배웠던 방식을 벗어난 새로운 사고의 기회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단순히 계산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수학의 기초적인 원리를 배우고 깨우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도의 교육도시 '코타'에 가면 우리나라를 능가하는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수의 학생이 인도공과대학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다. 인도에서 제일 유명한 인도공과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당연히 '수학'이다. 수학은 물리, 화학과 함께 인도공과대학의 입학시험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때문에 어릴 적부터 수학의 비중을 높여 공부한다. 어린아이들이 19단을 줄줄 외을 정도이다.

변별력 있게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학이다. 인도공과대학의 수학 문제는 우리나라 대학교 1~2학년 수준 정도로 어렵게 출제된다. 이렇게 입시 교육의 핵심이 '수학'에 집중

되어 있으므로 인도인들이 수학을 잘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 간단한 베다수학 계산법

베다수학의 특징은 특유의 사칙연산법이다. 덧셈의 경우 $75+38=113$ 을 예로 들면 75는 70+5로, 38은 30+8로 분리한다. 이중 일의자리 덧셈 5+8의 답 13은 다시 10+3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75+38=70+30+10+3=113$ 공식이 성립된다.

뺄셈법은 경우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보통은 10의 배수를 이용한다. 빼는 수에 일정 숫자를 더해 10의 배수가 되도록 만든다. $75-38=37$ 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38에 2를 더해 10의 배수인 40으로 만들고 $75-40=35$ 로 계산한다. 여기에 다시 38을 40으로 만든 숫자 2를 더한다.

베다수학의 곱셈법도 복잡하지 않다. 핵심은 덧셈을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7 \times 13=221$ 을 계산한다면 먼저 각 숫자 17과 13을 10+7, 10+3으로 간주한다. 이중 십의자리수끼리 곱해 $10 \times 10=100$ 을 만든다. 이어 십의자리와 일의자리를 각각 교차해 $10 \times 7=70$, $10 \times 3=30$ 을 구한다. 그리고 일의자리끼리 곱해 $7 \times 3=21$ 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구한 값을 모두 더해 최종값인 $100+70+30+21=221$ 을 구한다.

인생역전의 만남을 위하여

독일의 의사며 작가인 카로사는 “인생은 만남의 존재이다”고 말했습니다. 이 간결한 말에서 우리는 인생의 깊은 의미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출생부터 만남은 시작되고 만남의 끝남은 곧 죽음이며, 이는 곧 그 사람의 일생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만남이며 인류의 역사는 만남의 연속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주의 모든 것과 만나는데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만남 중에는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짓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카를 야스퍼스는 인생의 만남에 두 가지 형태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겉사람과 겉사람의 열은 만남(스치는 만남)과 또 하나는 인격과 인격의 깊은 만남(실존적 만남)이며 깊은 만남은 우리 일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만남입니다. 만남 중에는 안 만났으면 좋을 것이라는 만남도 있고, 역사에 위대한 시너지를 낸 꼭 필요한 만남도 있습니다.

성경에 가인과 아벨은 질투와 살인의 비극적 만남이며, 인도의 간디와 네루의 만남은 인도 해방의 대업을 이루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단종과 성삼문의 만남에서는 신(信)과 의(義)를 일으켜 충성을 이루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만남은 서양철학을 낳았고, 동양에서는 공자(孔子)와 안연(顔淵)의 만남은 ‘논어’를 통해 동양사상의 한 획을 넣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만남은 인생의 질과 공동체의 수준까지 혁신하는 불후의 선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좋은 만남은 그 자체로서 복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5복, 즉 수부귀강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5복이라는 것이 100% 현실적입니다. 100% 현실적이라는 말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한한 복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만남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조건 복이 되는 만남입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은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사람의 인체에도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이들이 온종일 뛰는 것은 에너지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종일 앉아있습니다.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그렇습니다. 고갈되면 각종 병이 유발됩니다. 병은 에너지 결핍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면 곧 피로감이 찾아오고 기쁨과 행복이 사라지고 그러다가 인생이 소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분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은 송두리째 달라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 채우시

고 그때 내 안에서 새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 에너지가 내게 행복을 주고 힘을 주고 충만함을 이룹니다. 그것이 곧 성령충만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죽는 순간까지 사역하고 일하고 전도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도록 섭리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에너지 원천이신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친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나오십니까? 설교를 통해 위로받기 위해 나오십니까? 기도하면 일도 잘 풀릴 것 같고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아 나오십니까?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며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인생을 헛산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을 때 인생이 아름답게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을 때 비로소 인생이 행복하게 변합니다. 성령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때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하루하루 편안하게 먹기 위해서 사는 무의미한 삶을 사는 존재였으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며 그 성취를 맛보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도망자로서 처갓집에 얹혀서 무기력하게 살던 촌부에 불과했지만,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자신이 꽤 괜찮은 존재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나는 꽤 괜찮은 존재야(I'm something).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전능하신 그분 앞에 붙들리고 나면, 그분의 사랑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때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I'm nothing).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그러나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감동되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실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

여 십자가에 피흘려 죽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전능한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할 때,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며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I'm everything)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 생각하고 종교인의 하나로 살아가던 로이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진주만에 정박해 있는 전투함에서 동료들과 함께 성경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성경구절을 하나씩 말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외울 수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는데 바로 앞사람이 그 구절을 말해버렸습니다. 순간 그는 정신적 공황에 빠졌고 자신이 발가벗고 서 있는 듯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성령님은 “로버츠 너는 가짜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55분에 그는 전쟁 대행을 명령하는 배의 경적소리를 듣고 깨어났습니다. 360대의 일본 함대의 비행기가 그가 탄 배와 다른 군사 시설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는 동료 승무원과 함께 기관총이 장착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훈련용 가짜 총탄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일본 비행기를 놀라게 하려고 그 가짜 총탄을 목표물을 향해 맹렬하게 쏘았습니다. 그 가짜 총탄을 쏘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로버츠! 이렇게 그리스도를 향해 가짜 총탄을 발사하는 것이 이제까지 네가 살았던 방법 아니었느냐?” 그는 가짜 총탄을 쏘면서 자신의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한탄하며, 일본군의 총탄이 배로 작렬해 퍼부어지는 순간에 그는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살아남게 되면 앞으로 남은 인생은 주님을 위해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그후 그는 네비게이터 선교회를 창설한 도슨 트루트만을 도와 수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끈 주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당신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의 성공지기

박인용 월드와이드교회
담임목사



월드와이드교회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app) 출시

언제 어디서나 월드와이드 교회 박인용목사의 은혜로운 설교와 교회소식을 내 손안에서 받아 볼 수 있는 안드로이드 전용 어플리케이션(app)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는 법

‘안드로이드 마켓’을 클릭>검색에서 ‘월드와이드교회’ 라고 기록 후 검색하여 클릭-> ‘다운로드’ 클릭-> ‘동의 및 다운로드’를 클릭->설치 완료 후 ‘월드와이드교회’ 아이콘을 클릭하여 설치 상태를 확인

*아이폰(iPhone) 어플리케이션(app) ‘twitter(트위터)’ ‘facebook(페이스북)’ ‘me2day.net(미투데이)’ 와 같은 SNS (Social Network Service) 도 곧 출시!



박인용 목사
주일설교방송 안내



• www.wwch.or.kr

• 극동방송 라디오 FM106.9

청년설교(화, 저녁 10시10분)

북한 미사일 외교의 끝장은?

북한의 잇따른 무력도발로 인해 2018년 합의한 '9·19남북군사합의' 파기의 기로에 서 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남북이 상호 간에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려는 방안들로 채워져 있다. 그러나 북한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남북군사합의를 어긴 북한의 사례를 통해 과연 9·19남북군사합의를 유지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9·19 군사합의 내용은?

2018년 9월 19일 대한민국의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의 노동당 인민무력상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이를 통하여 남북은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하였다. 남북의 군사합의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이는 남북이 연평해전 등 우발적 충돌로 인한 불행한 마찰을 겪은 과거를 되풀이하지 말자는데 방점이 찍힌 문안이다. 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도발을 막기 위함이기도 하다.

남북은 합의서 1조 1항에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에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2조에는 이를 위한 실행 방안 중 하나로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완충구역)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 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 실행,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 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는 등의 결정사항을 담았다. 이 같은 결정사항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프로세스'도 합의문에 명시됐다.

남북은 당시 만일의 상황 발생시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2차 경고방송→경고사격→2차 경고사격→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대응,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차단비행→경고사격→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로 대응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북한 군사합의 위반내용

북한은 하노이 결렬 3개월만인 2019년 5월 미사일 발사를 재개하며 도발을 재개했다. 남북, 남북미 간 '훈풍'이 불기 시작한 2018년 1월 이후 1년 5개월만의 미사일 발사였다.

2019년 미국에 '연말 시한'을 제시했던 북한은 미국이 이에 응하지 않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재개했다. 비록 9·19군사합의가 남북의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는데 방점이 찍힌 합의이기는 하나, 포괄적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합의 정신' 하에서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이 같은 도발 재개에 곧바로 '합의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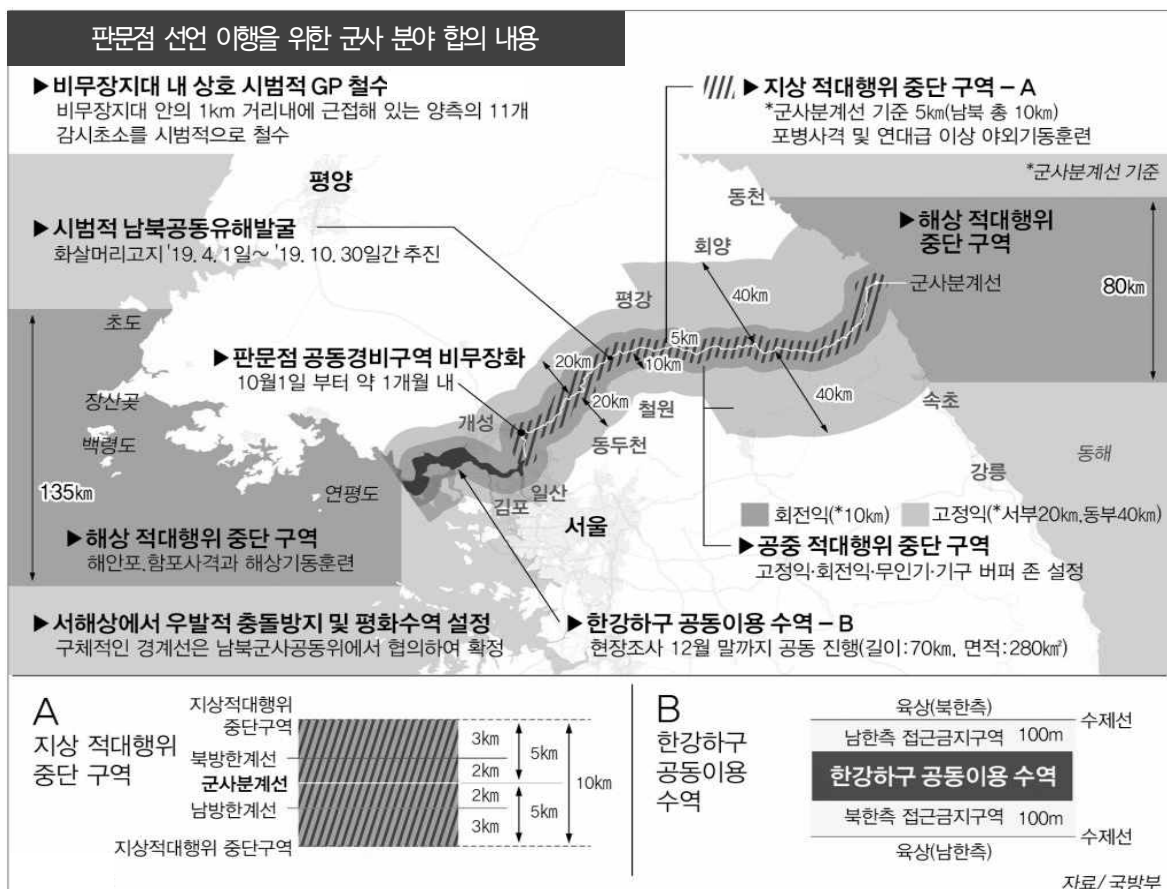
2019년 11월 23일에는 창린도 방어부대의 해안포 사격을 감행했다. 창린도는 9·19합의에 따라 해안포 사격이 금지된 '해상적대행위 금지구역' 내에 있으며, 북한이 연평도 포격 9주기에 맞춰 도발을 감행한 것도 문제였다. 2020년 5월 3일에는 중부전선 비무장 지대 GP에 북한군 GP에서 발사된 총탄이 날아왔다. 북한의 의도적인 행동은 아닌 것으로 판단됐지만, 당시 군 당국은 합의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북한에 항의의 입장을 통지했다.

북한이 10월 14일 새벽 방사포(다연장로켓) 등을 이용해 동·서해상으로 쏜 포탄 170여 발 중 일부가 북한한계선(NLL) 북쪽의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북한이 9·19합의를 물리적으로, 명백하게 위반한 세 번째 사례가 되며, 그간의 위반 사례 중 가장 규모가 큰 위반 사례가 된다. 아울러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와 공군의 위력 시위와 함께 총 4시간 반가량의 복합 도발을 펼친 점, 아울러 최근 한미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행동이 나왔다는 점에서 '합의 정신'을 가장 크게 위반한 도발로 평가된다. 우리 군 당국도 북측 도발에 비례적으로 대응해 NLL 이북 공해상에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이지만 우리도 처음으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셈이지만, 북한 도발에 대해 지위권 차원의 상응한 대응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이것으로 합의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남북군사합의 파기의 득과 실은?

북한이 완충 수역을 겨냥해 보란 듯이 포를 쏘며 의도적으로 자극을 하고 있다. 북한은 합의를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의도가 보인다.

유명무실해 보이는 9·19 합의를 파기할 때가 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가 실제로 9·19 파기 카드를 꺼낸다면 정치적으로는 강력한 대북 압박 신호가 될 수 있고, 군사적으로는 완충구역에서 중단된 한미 공군의 정찰 활동과 해안포 사격훈련 등을 재개할 수 있다. 하지만 득보다 실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은 최근 무력시위를 벌인 뒤 그 책임을 한미에 떠넘기려 애쓰고 있는데, 우리를 자극해 합의 파기 선언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결국 합의 파기는 정세 악화의 책임을 떠넘겨 추가 도발의 명분을 쌓으려는 북한에 발미만 준다는 것이다.



아! 대형참사 무엇이 시급할까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인파에 밀려 156명이 압사당하는 초유의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특히 터져 나오는 대형 사고로 수십 명씩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대형 사고가 대부분 자연적 요인·우연 등이 아닌 안전 관리의 총체적인 부실의 결과물, 즉 인재이다. 불행한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압사 사고 대처법은

이태원 참사는 많은 사람에 의한 압사 사고이다. 압력에 의해 숨을 쉬지 못해 숨지는 것은 외상성 질식 사라고 한다. 이때 공기가 폐로 전달되지 않아 산소가 부족해 사망하게 된다. 보통 몸이 말 그대로 짓눌리는 직접적인 압사보다는 깔린 상태에서 압력에 의해 압박 혹은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 외의 경우에는 압력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된다. 극히 드문 경우 장시간 짓눌린 신체에서 발생된 독소가 압력원을 치우며 혈액순환이 재개되어 온몸에 퍼지며 쇼크사가 발생할 수 있다.

예방하기 위한 최우선 방법 역시 ‘질서’ 뿐이다. 행정안전부의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길잡이 지도서’에선 공연장, 행사장 등에서 ‘뛰거나 앞사람을 밀면 안전사고 원인이 되므로 걸어서 입장하고, 질서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고 명시했다.

대한응급의학회지에 실린 ‘상주시민운동장 압사사고 분석’ 논문에서 따르면, 군중 몰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계획’이 중요하다. 여기엔 행사 성격, 소요 시간, 개최 장소의 특성, 출입 동선, 참가자 나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동선에 있어서 장애물을 치우고 출입문을 여러 개 만들며, 병목 현상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게 줄서기를 행사에서 시행해 사고 발생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몸무게 65킬로인 성인 100명이 한꺼번에 밀 때 압력이 최고 18톤까지 올라갈 수 있단 실험 결과도 있다. 다수가 좁은 공간에 몰려 있는 상황이면 축제는 물론,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포함해 어디서든 생길 수 있다. 군중 속 질식사고를 예방하려면 ‘가슴 앞 공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앞뒤로 밀리는 압력에서 공기가 폐로 전달될 수 있도록 버티고,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압사사고 대응 행동요령

- ①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공간을 확보하고 다리는 고정(갈비뼈 보호, 호흡공간 확보)
- ② 군중이 움직이는 힘과 방향에 저항하지 말 것
- ③ 넘어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도록 두 다리를 고정시켜 위치 유지, 기저면 형성
- ④ 움직임이 잠잠해지면 대각선으로 군중을 가로질러 이동 시도
- ⑤ 넘어졌을 경우 몸을 웅크려 머리, 가슴 등 중요 신체 부위 보호
- ⑥ 평정심을 유지했다가 최대한 빠르게 일어나 안전한 자세 취함

‘압사 방지법’ 제정해야

이태원 핼러윈 참사는 과도하게 밀집된 군중에 대한 안전 관리 실패와 부실한 재난 대응 시스템에서 비롯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압사 사고를 부르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군중의 밀도이다. 트레이시 헤레스코 펄 오클라호마대 법대 교수의 2016년 논문 ‘압사에 대한 성문법적 해결책’에 따르면 군중의 밀도가 1㎡당 다섯 명을 넘어서면 압사 위험이 급증하며, 일곱 명에 이르면 반드시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고 한다. 사람들이 유체의 일부처럼 비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돼 개인의 의지로 사고를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이다. 당시 현장 상황이 담긴 영상 이미지 분석 결과 밀집도는 1㎡당 최고 16명에 달했다고 한다. 펄 교수의 기준대로라면 이태원 참사 당시 군중 밀도는 임계점의 두 배를 넘어선 것이다. 펄 교수는 압사 사고를 막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과학적인 군중 관리·통제를 의무화하는 성문법 도입”을 제안했다.

무슬림이 성지순례를 위해 찾는 자마라트 다리에서는 1990년 1천426명이 숨지는 등 비극적인 압사 사고가 반복돼왔다. 당국은 2006년 다리를 증축했지만 2015년 700명 이상이 압사로 숨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특정 장소를 정비하더라도 그 장소 주변에 운집하는 군중에 대한 대비책은 될 수 없다. 실제로 2015년 참사는 자마라트 다리가 아니라 다리로 향하는 길목들에서 벌어졌다.

압사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재난으로 군중 밀집도에 대한 안전 기준 마련과 실시간 모니터링 등 압사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태원 참사, 국민 모두 ‘트라우마 고위험군’

재난 충격의 피라미드



트라우마로 잘 알려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는 죽을 뻔한 상황이나 이와 비슷한 충격을 경험할 때 발생하는 불안장애의 한 종류다. 직접 사고를 경험하지 않아도 이를 간접적으로 관찰하는 행위로도 외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직간접적으로 겪은 사람들은 모두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위험군이다.

실제 사람들이 외상후스트레스를 겪을 확률은 ‘재난 충격의 피라미드’ 기준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사고 당사자가 아닌 주변인들이 더 오랫동안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겪은 예도 있다. 이소희 전문의의 해당 연구결과에 의하면 같은 기간 세월호 생존 학생보다 이들의 유가족이 증상을 보인 비율이 83.6%로 훨씬 높았다.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의 연장선상으로 불안후격분장애(PTED)가 찾아올 수 있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증상이 울분과 분노와 같은 공격적인 감정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치유를 위해선 사회 전반에 걸친 우호적인 수용의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

밀집 지역 내 상황별 응급처치법

자료: 응급의료 전문의 종합

공황, 쇼크(안색 변화, 호흡 불규칙)

- 다리를 수평 또는 머리보다 높게 누임
- 안색이 붉을 경우에는 머리를 높게 누임



의식 불명

- 옆으로 누인 후 양팔을 뻗게 함
- 턱은 뒤로 젖힘



호흡 중단

- 머리 젖혀 기도 확보
- 입으로 숨을 불어넣는 인공호흡



출혈, 골절 등 부상

- 상처 부위 압박 지혈
- 골절 부위 삼각건 등으로 고정



심정지

- 흉골 중간점에 두 손 올림
- 4~5cm 들어가게 1초에 2번씩 누름
- 구급대원 도착까지 지속



종말의 그림자, 세계는 분쟁 중

전쟁터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통을 한꺼번에 겪는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곳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인한 이런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다.

2022년 분쟁 중인 지역

현재 세계에서 분쟁이 진행 중인 국가나 지역은 대략 26곳으로 추려진다. 지난해 탈레반이 장악한 후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와 정부 간 전쟁이 벌어지는 미얀마가 대표적이다. 예멘과 레바논, 에티오피아, 시리아, 수단, 소말리아, 콩고공화국 등도 수년째 내전 중인 국가들이다. 전 세계 전쟁 상황 데이터를 수집하는 ACLED에 따르면 2022년에만 분쟁으로 죽은 사람이 무려 2만5173명에 이른다. 지난해엔 12만 명이상이 사망했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온 곳은 미얀마이다.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지 400여 일째, 올해 현재까지 4360명이 사망했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대리전 격으로 8년째 이어지는 예멘 내전은 지금까지 400만 명을 고국 밖으로 내몰았다. 올해에만 예멘에서 3698명이 사망했다.

7년의 분쟁으로 폐허가 된 예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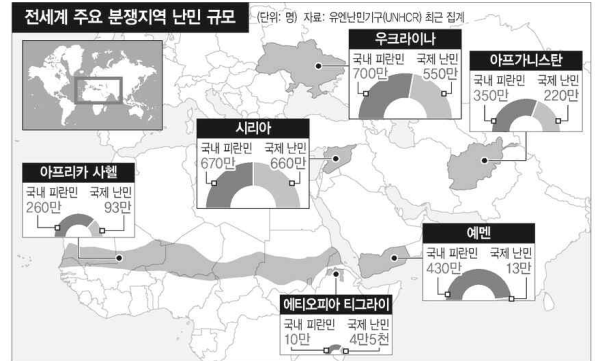
예멘은 지난 2014년부터 시아파 이란이 후원하는 후티 반군과 수니파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원하는 정부군과의 내전에 시달려왔다. 7년간의 전쟁으로 사망자만 37만7000명에 달하고 현재 예멘 인구 3000만 명 중 약 2000만 명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예멘 내전의 최대 격전지는 중북부에 위치한 마리브주로, 올해 상반기 예멘에서 내전으로 사망한 1만 명 중 44%가 여기서 숨졌다. 유엔난민기구는 전쟁이 길어지면서 고향을 등지고 떠도는 피란민이 2015년 초 250만 명에서 올해 3월 430만 명까지 늘었다고 밝혔다. 피란민의 40%는 식수·보건·교육 등 기본적인 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2년 만에 살얼음 '휴전' 에티오피아

2020년 11월에 발발한 에티오피아 내전이 장기화되며 이 지역에선 민간인 학살, 인종 청소, 조직적 성폭력 등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로 간주되는 사건들이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80여 개 종족으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로 주별 자치권을 허용해 종족 간 평화로운 공존을 도모하였으나, 권력 배분과 주 경계 등의 사안에서 종족 간 이해관계가 충돌해 왔다. 최근에는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하며 정치적 영향력이 가장 큰 오로모족과 27%를 차지하는 암하라족, 그리고 6%를 차지하는 티그라이족 간의 마찰이 두드러졌다. 특히 27년 가까이 실권을 장악한 티그라이족 정당 TPLF가 지방정부를 강력하게 통제하자 다른 종족들의 불만이 커졌다. 그런 와중에 아비 아흐메드 총리가 2018년 오로모족의 지지에 힘입어 정권을 탈환하자 갈등이 심화했다. 티그라이족은 아비 통치 집권 이후 자신들이 중앙 정치에서 소외됐다고 주장했으며, 2020년 총선을 재기의 발판으로 생각했으나 선거가 지연되자 불만을 폭력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했다. 정부와 티그라이족의 분쟁은 대규모 국내 실형민과 난민을 발생시켰다. 지난 2년간 최대 50만 명의 사망자와 수백만 명의 피란민을 낳은 에티오피아 내전이 11월 2일 전격 휴전에 들어갔다.

평범한 일상을 자운 11년 내전 시리아

시리아는 독재정권 퇴진과 민주화 요구로 11년째 내전이 계속되고 있다. 2011년 3월 시리아 남서부 다라에서 학생들이 '국민은 정권 붕괴를 바란다'고 벽에다 썼다. 이들이 체포돼 고문당하자 석방 시위가 일어났고 경찰 발포로 희생자가 나왔다. 바샤르



알 아사드 독재에 항의하는 시위는 이내 전국으로 번져 내전으로 비화했다.

11년의 가나긴 내전은 극심한 빈곤과 세계 최대의 실형민을 남겼다. 유엔 시리아 조사 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시리아의 1,460만 명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고, 1,200만 명이 심각한 식량 불안정에 직면해 있다. 시리아 정부가 반군이 장악했던 영토를 탈환한 이후에도 국민의 삶은 개선되지 못했고, 정권의 통제 아래에 있는 국민도 90%가 빈곤 속에 살고, 시리아 화폐 가치는 무려 90%가 폭락했다. 민주화의 열망으로 시작된 시리아 내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가장 큰 요인은 종파갈등이다. 시리아는 이란과 이라크와 같이 시아파가 집권한 나라이지만, 국민 다수는 수니파이다. 반면 튀르키예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가 집권한 국가들이고, 이 두 나라는 시리아 반군을 지원한다. 시리아 정부와 반군을 지원하는 나라들이 이슬람 종파로 인해 나눠지다 보니 시리아 내전은 점점 장기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여기에 더해 시리아에 해군 기지를 두고 있던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반대로 IS 격퇴를 목표로 미국과 서방 여러 나라가 참전하면서 시리아 내전이 국제전의 성격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봄의 혁명'에서 '내전'으로 미얀마

2020년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집권당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두자 군부는 선거결과를 부정하고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쿠데타가 일어난 직후는 미얀마의 전 국민이 평화로운 시위로 군부쿠데타에 반대했다. '봄의 혁명'이라고 불렸다. 이후 군부의 잔인한 무력진압, 시민들에 대한 체포와 민주 인사들에 대한 사형 등이 이어지자 시민들은 스스로 지키는 방식을 택했다. 지역별 시민방위군을 규합해 일원화된 지휘 체계를 갖추며 소수민족 무장단체들과 협력해 공동전선을 펼치며 '내전'으로 바뀐 상황이다. 정치적 불안정이 장기화하면서 올해 9월까지 미얀마에서는 13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가옥 2만8000채가 파괴됐다. 국제사회의 제재 등으로 외환보유고가 감소하면서 미얀마 화폐의 가치가 지난 9월에만 60%가량 폭락했다. 기본 상품가격은 57% 폭등했다.

2022년 세계의 안보 지형



사우디 사막의 미래 도시, 한국을 부른다

꿈의 신도시로 불리는 '네옴'은 미래의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 첨단기술과 청정 환경으로 이루어진 도시가 될 것이다.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에서 탈피하여 신재생에너지로 움직이는 도시를 계획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스마트도시 '네옴 시티'

네옴시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 지배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2017년 석유 중심의 사우디 경제를 대전환하기 위한 전격적인 초대형 신도시 사업이다. 네옴시티는 그린수소·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조를 갖추고 로봇이 물류와 보안, 가사노동 서비스를 담당하는 친환경 스마트 신도시다. 네옴시티는 사우디 북서부 타북주 일대에 약 2만6500km²로 조성된다. 서울시의 약 44배에 달하는 크기로 규모는 5000억 달러(약 600조)에 달한다.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트로제나, 옥사곤, 더 라인의 세 개의 지역뿐 아니라 유전자변형작물(GMC) 경작지, 항만(네옴베이), 국제공항 등으로 구성되며 2030년까지 네옴시티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산악지형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공간, 트로제나(Trojena)

트로제나는 사우디에서 가장 높은 산맥에 지어진다. 사우디 북부에 개발될 트로제나의 평균 온도는 10도 정도 낮아 대부분의 사우디 지역과 달리 연중무휴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지리적 장점으로 아가바 연안에서 50km 떨어진 산악지대(해발 1,500~2,600m)에 위치하며 60km²의 면적에 조성된다. 이 일대는 겨울에 종종 눈이 내리기도 하고 겨울엔 영하로 떨어져 스키장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트로제나는 자연과 인공의 조경이 어우러져 독특한 사람 중심의 경험을 제공하는 상징적이고, 세계적 수준의 장소로 설계되고 있다.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스키장을 비롯하여 수상 스포츠, 하이킹, 산악자전거 등 아웃도어 스포츠를 중심으로 호텔과 리조트를 조성하여 레저의 세계적인 중심지로 계획하고 있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아파트, 맨션 등 다양한 고급의 시설들도 함께 공급될 예정이다.

산업지구로 조성되는 옥사곤(Oxagon)

옥사곤은 세계 최대 바다 위에 떠 있는 부유식 산업단지이다. 세계 무역의 13%가 가까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므로 새로운 단지에 해상교통, 도로, 항만, 항공, 고속철도 연결 등 환경조성이 우수하다. 사람과 산업, 기술이 자연과 어우러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장소로 계획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지어질 해양 산업단지로 제조업 및 산업연구, 두 바 항구의 확장에 초점을 둔 산업단지이다. 옥사곤은 물류 이동의 중간지로서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것이 목표이다.

팔각형 디자인은 환경 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토지 이용을 제공, 나머지 95%로는 자



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방한다.

네옴 시티의 성장 엔진으로서 완전 자동화된 항구는 물리적, 디지털 공급망이 통합되어 세계 시장과 연결을 추구한다. 네옴 시티의 경제, 산업 부문을 담당할 예정이다.

도보 5분 내 모든 시설을 갖춘 자연 친화형 스마트도시, 더 라인(The line)

네옴시티의 핵심이다. 자연을 위해 100% 친환경 에너지로 구성된다. 폭은 200m밖에 안 되지만, 총길이는 170km, 높이는 500m에 이르는 선형의 지구로 9백만 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 외벽을 거대한 거울로 둘러싸게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도시의 개념은 '무중력 도시'이다. 도시 내부를 3가지 방향으로 무한히 움직일 수 있게 설계를 한다는 개념으로 더 라인에 거주민은 '위로, 아래로, 직선으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지상층에는 자동차와 도로가 없는 제로 탄소배출 지역을 지향한다. 해안, 해안사막, 산악지대, 상부계곡의 4개의 생태지구를 선형으로 연결한 지구로 지하 2층의 척추층은 AI로 제어되는 교통수단인 최고속 대중교통망과 차세대 화물수송망이 구축된다. 지하 1층인 서비스층에는 자동차, 트럭 등이 다닐 수 있는 도로로 구성되고, 지상층은 도보와 자전거만 허용되는 자동차 프리 지역이다.

더 라인의 모든 에너지는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5분 이내에 필수적인 시설을 배치하여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중심 도시를 지향한다. 모든 유틸리티와 대중교통 서

비스를 지하로 내려, 지상층은 사람과 자전거 등 PM(Personal Mobility)만 통행하는 환경을 만들어 사람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 중95% 이상을 공공이 수집하여 AI로 제어되는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어 생활 편의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네옴 메가시티에 진출한 국내업체들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주를 맡은 곳은 삼성물산과 현대건설로 두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네옴 시티의 더라인 프로젝트에 터널 공사를 수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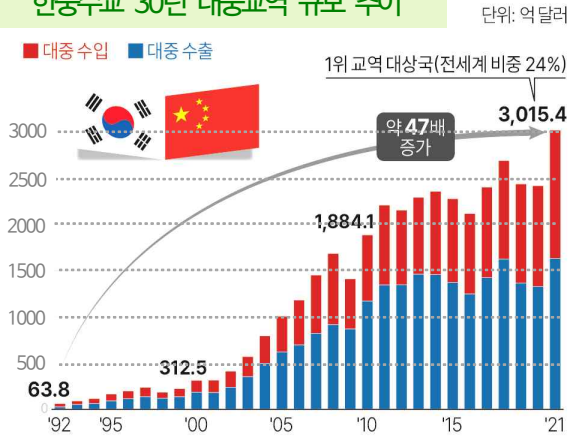
스마트 시티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는 현대차그룹도 사우디 진출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네옴 시티에서 바닷물을 이용해 그린 수소를 생산해 '세계 최대 수소 수출국'이 되겠다는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어, 현대차는 수소연료전지와 수소차 진출도 모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원팀 코리아 사우디 수주지원단'을 꾸려 11월 4일부터 9일까지 네옴시티 건설 수주 등 한국 기업의 관심이 많은 대형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하고 관련 현지 기업 대표 면담을 통해 기업 진출을 돕는다. '미래형 공간'을 구축할 역량을 인정받은 네이버는 이번 수주지원단에 동행한다. 네이버는 올해 4월 완공된 신사옥 1784를 세계 최초의 로봇 친화형 빌딩으로 건립했다. 1784의 핵심 기술인 '아크(ARC)'와 '5G 특화망 패키지'를 내년까지 상용화해 '미래형 공간'의 대중화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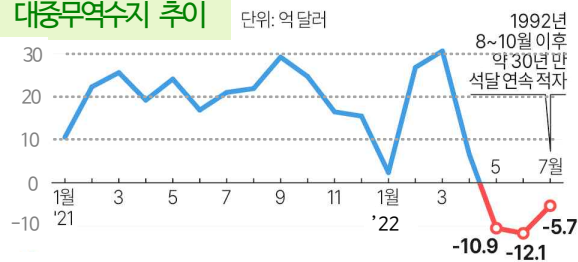
대 중국무역, 반전의 날은?

한국 경제의 위기 중 하나는 가장 큰 수출시장인 중국과의 교역실패로 전체 무역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을 떠받치던 중국 시장이 한국산에 등을 돌리면서 대중국 무역수지가 사상 첫 4개월 연속 적자 위기에 몰렸다.

한중수교 30년 대중국무역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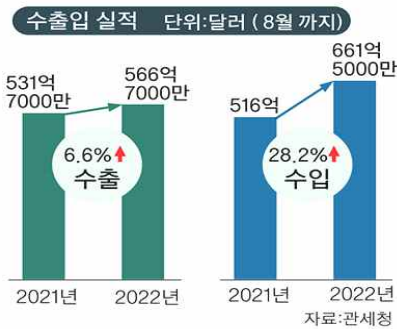


대중무역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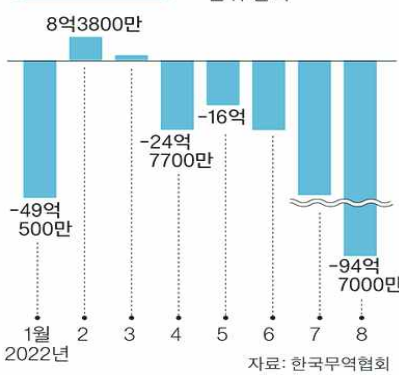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악화하는 한국 무역



무역수지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입 비중이 상승세인 중국산 소부장



※ 2022년은 7월 기준

자료: 소부장넷

한중 경제지표



한국의 대중국 10대 수출입 품목 변화

순위	수출			수입		
	1992년	2011년	2021년	1992년	2011년	2021년
1	철강판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반도체	식물성 물질	반도체	반도체
2	합성수지	반도체	합성수지	원유	컴퓨터	컴퓨터
3	철근	석유제품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섬유직물	철강판	정밀화학원료
4	가죽	합성수지	석유제품	시멘트	무선통신기기	무선통신기기
5	인조섬유	자동차부품	광학기기	석탄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철강판
6	섬유직물	석유화학합성원료	석유화학중간원료	건직물	의료	산업용전기기기
7	종이제품	무선통신기기	비누치약 및 화장품	곡식류	산업용 전기기기	의료
8	화학기계	석유화학중간원료	반도체제조용장비	정밀화학원료	정밀화학원료	건전지및축전지
9	석유제품	철강판	컴퓨터	면직물	기타중전기	자동차부품
10	석유화학제품	기초유분	무선통신기기	기타농산물	선재봉강 및 철근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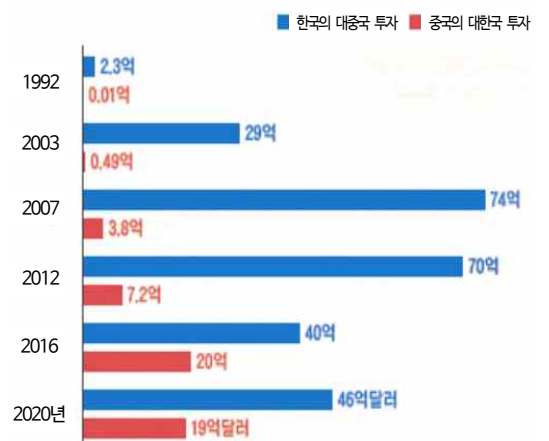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중수교 30주년 주요 일지



출처: 경향신문

확장세 주춤한 한-중 상호 투자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고통 중에 있는 순종견들과 그들을 만든 우생학자

많은 사람이 순종견(족보견)을 좋아한다. 각 품종의 독특한 외모와 그들의 예측 가능한 기질은, 많은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는 데에 비싼 금액을 내도록 만든다. 그러나 어떻게 그러한 특징에 값을 매기게 되었으며, 개의 건강을 위해 이러한 '순혈통'이 더 바람직할 수 있을까?

집에서 기르는 개는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독특한 '유형'의 개들이 등장한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특성을 위해서 교배되면서부터였다. 즉 사냥, 경비, 가축의 목축 등과 같이 개들이 해주시를 바라는 유형의 작업과 주로 관련이 있는 특성을 위해서, 자기의 개들을 선택적으로 품종개량 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였다. 개들이 특별히 그들의 임무에 적합하게 품종개량된 것처럼, 어떤 유형의 독특한 외관도 취해지기 시작했다. 독특한 외관 중 일부는 (털의 색, 크기, 얼굴 모양 등에 영향을 미치는) 돌연변이에 기인한 것이었다. 유용한 형질이 확인되면, 그 형질이 전달된 근친의 개들끼리 동종교배를 시켜서, 그 형질을 부각시켰다. 이것이 개의 '품종개량'의 기원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현대 개들의 품종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다.

애견협회(켄넬 클럽, 1884년 미국에서 출범한 순종견을 보호 장려하기 위한 애견단체)은 이 새로운 품종의 개를 등록하고, 그들의 번식을 추적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각 품종을 위해 족보와 같은 혈통서가 만들어졌으며, 해당 품종의 개는 오직 그 특별한 품종의 후손과만 교배하도록 영원히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진화론적 생각의 새로운 물결에서 영감을 얻은, '우생학'이라는 개념이 찰스 다윈의 사촌인 프랜시스 골턴에 의해 고안되었다. 우생학이란 사람이건 동물이건 '가장 순수한' 개체를 개량하는 것이 더 나은 후손을 낳게 될 것이라는 개념이었다. 이외는 반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개체는 짝짓기하는 것을 방지하여서, 특정 종의 장래 혈통을 손상시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요한 것은, 우생학에 관하여 사실들이 알려지기 이전에, 이런 개념이 전제되었다는 것이다.

가장 '예쁜' 개가 '최고'의 개인가?

애견협회는 각 개에 대한 '품종 표준'을 개발하고, 품종의 이상적인 외관에 대한 설명을 기록해놓았다. 그러나 품종 표준이란 말은 오늘날의 '유행'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품종에서 과장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잉글리쉬 불독에 대한 미국 애견협회의 품종 표준은 그것이 "짧은 얼굴의 커다란 머리"를 가져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그런데 얼마나 커야 하는가? "귀 앞에서 두개골의 둘레는 적어도 개의 어깨 높이 만큼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불독 품종에서 커다란 머리는 너무도 중요해서, 품종 표준에서 이것은 두 번이나 언급되고 있다. 그 결과는? 불독은 90% 이상이 제왕절개술을 통해 새끼를 분만하고 있다.

다른 특징들은 어떠한가? "눈은 정면에서 보았을 때, 두개골에서 아래쪽으로 낮게, 가능한 한 귀에서 멀

리 위치해야 한다" "귀는 가능한 눈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얼굴은 극도로 짧아야 하며, 주둥이도 매우 짧아야 한다". "머리와 얼굴은 심한 주름으로 덮여야 한다"

오늘날의 잉글리쉬 불독과 1800년대의 그림에서 표현되어 있는 불독을 비교해보면, 품종 표준은 그 특징을 점점 더 과장되게 해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잇 불독으로 알려진,
올드 잉글리쉬 불독



오직 '최고'의 개만 교배된다.

교배되는 개들은 이미 인공적으로 제한된 유전자 풀을 갖고 있다. 비록 그 개들이 다른 품종의 어떤 개와도 잡종교배를 할 수 있으며, 심지어 늑대와도 교배할 수 있지만, 순종의 강아지를 얻기 위해서 잉글리쉬 불독은 잉글리쉬 불독과만 교배되었다. 그러나 '잘못된' 색깔의 코와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특성을 지닌 개는 교배되지 않기 때문에, 유전자 풀은 더 작아져 간다. 그러면 잘못된 색깔의 코는 다음 세대에서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 개의 다른 유전자들도 더불어 나타나지 않게 된다.

아픈 '순종' 견들이 건강한 '잡종' 견보다 더 선호된다.

한 분명한 사례는 정상적인 낮은 요산 수치를 갖는 달마시안에서 볼 수 있다. 달마시안은 품종개량의 우연한 부작용으로 요산 대사를 위한 정상적인 유전자를 잃어버렸다. 요산이 축적되면, 사람은 통풍이 유발된다. 달마시안에서는 방광 결석이 일어날 수 있는데, 치료하지 않으면 치명적이다. 따라서 모든 '순종' 달마시안은 특별한 식이요법을 받아야 하며, 방광 결석을 자세히 관찰해야 한다. 그러나 1973년에 달마시안과 잉글리시 포인터를 이종교배 시킴으로써, 이 계통 안으로 포인터의 유전자가 도입되었다. 최초의 강아지는 특별히 달마시안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다시 순종 달마시안과 이종교배를 시킨 결과, 순종 달마시안과 DNA가 99.98%가 같으면서도 정상의 낮은 요산 수치를 갖는, 정확히 달마시안과 같이 생긴 개가 나왔다. 이들 정상적인 'LUA 달마시안'은 병든 달마시안들보다 분명히 더 선호되어야 한다. 애견협회가 거의 전례가 없는 단계를 거쳐, LUA 달마시안을 순종 달마시안이라고 받아들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잡종'으로 간주하고 있다.



순종견을 만드는 것은 윤리적인가?

달마시안의 사례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경우는 더욱 복잡하다. 어떤 품종은 나쁜 품종개량으로 만들어진 문제점을 해결해줄 유전적 다양성을 더는 갖고 있지 않으며, 또 다른 품종은 호흡곤란, 짝짓기 및 출산 장애를 겪고 있는, 짧은 주둥이를 가진 품종과 같이, 그들의 이전 모습과 다른, 괴물 같은 캐리커처로 변해 버렸다.

어떤 사람들은 이종교배가 건강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되어버린, 유전자 풀의 고갈 문제를 야기시키는 품종개량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논쟁은 간단하다 : 우리가 정말로 이 동물을 사랑한다면, 아프고 고통받는 동물들이 계속해서 세상에 나오게 하는 일을 이제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레빗 불독과 같은, 건강하고 체력이 좋은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 중이다. 그런데 나아진 것은, 새로운 품종개량에 대한 개념은 품종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목표를 갖고, 현재의 최상의 유전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옵션은 개들의 여러 품종을 서로 이종교배하는 것이다. 잡종 개는 종종 순종견 부모가 갖는 건강 합병증을 피하고, 상당히 예측 가능한 외모와 기질을 갖고 있다. 한 예가 슈나우저와 푸들 사이의 잡종인 슈누들이다. 개의 품종들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들 품종에 부주의하게 도입된 모든 종류의 방법들, 즉 그 개들이 불필요하게 겪고 있는 고통을 초래한 품종개량에 대해서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돌보고 있는 동물들의 건강을 포함하여, 피조물의 책임 있는 청지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순종견과 잡종견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아보고, 건강한 잡종이 순수한 혈통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창조과학회 제공)



열방의 다이제스트

우크라이나 식량난...개도국·저개발국 몰락 가속화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에 더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식량난까지 겹치며 개도국과 저개발국(LDC)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다. 스리랑카는 9월 물가상승률이 94.9%에 이르는 등 심각한 인플레이션 문제를 겪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올해 물가상승률이 100%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경제, 치안 문제가 악화한 멕시코에서는 2021년 10월~올해 9월 말까지 238만 건의 미국 형 불법 입국 사례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의해 적발되는 등 '탈멕시코'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그 외 베네수엘라, 쿠바, 니카라과 등에서도 정권을 피해 이주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CBP는 전했다. 아프리카는 수십 년 만의 식량 위기로 약 1억4600만 명이 식량 불안정 상태에 놓였다. 고질적 빈곤에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겹치며 상황이 점점 더 악화하고 지역 내 분쟁과 테러로 거주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日, 매독환자 1만 명 넘겨...1999년 이후 처음

일본에서 올해 매독 환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고 보건당국이 발표했다.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는 매독 감염자 수는 지난달 23일까지 1만141명으로 집계돼, 통계수집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환자는 남성이 6167명, 여성이 3144명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30대가 75%를 차지하고 특히 20대 전반이 많다. 매독은 '매독 트레포네마'라는 균이 원인으로 발병하며 주로 성관계를 통해 감염된다. 유사 성관계를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 산모를 통한 태아 감염이나 혈액을 통한 감염도 전파 경로가 될 수 있다. 발병 시 반점, 발진 등이 발생하며 심할 경우 장기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매독은 일본에서 1940~1960년대 크게 확산했지만, 항생제가 발명된 이후 크게 줄어 환자 수는 연간 1000명 이내였다. 일본 미디어들은 데이트앱이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불특정다수와의 만남이 감염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中, 공산당 당대회 기간 중 전도하던 거리설교자 체포

중국 후난성 형양시의 샤오천교회 소속 첸웬성은 당대회가 개최되는 동안 전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해, 경찰에 의해 산속에 일주일간 구금됐다. 첸은 그동안 '우리 구주께 영광',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문구가 적힌 나무 십자가를 들고 행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과거 10년 동안 마약 중독자로 살았던 첸은 재활원에서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 거리 전도를 계속해 왔다. 그는 형양시 거리에서 설교하다가 지난해에만 여섯 차례 이상 구금된 바 있다. 지역 경찰들은 첸에게 지역 삼자교회 가입을 설득하였으나, 첸은 정부가 규제하는 삼자교회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거절했고, 이어 구금됐다. 중국에서는 등록된 종교단체 이외에는 전도가 금지돼 있다. 중국의 5대 국가 공인 종교단체는 중국불교협회, 중국도교협회, 중국이슬람협회, 개신교 삼자애국운동, 중국천주교애국협회다. 그러나 여기에 소속된 이들도 감시 및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생활비 늘고 용돈 줄어...노인들 일터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조사통계월보 고령층 고용률 상승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고령층 고용률은 36.2%에서 42.9%로, 6.7%포인트 올랐다. 전체 취업자 수는 324만 명 늘었는데 이 가운데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2%(266만8000명)였다. 일자리를 다시 얻는 고령층이 늘어난 것은 생활비가 늘었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고령층의 실질 소비 지출은 의료비, 식료품, 주거비를 중심으로 29.2%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소비 증가율인 7.6%를 크게 넘는 수준이다. 생활비가 100% 상승하면 취업 확률은 1.6~1.9%포인트 높아진다. 반면 고령층 부모가 자녀로부터 받는 용돈은 줄었다. 자녀에게 지원받는 금액을 연도별 상하위 1% 극단치를 제거한 뒤 소비자물가지수로 실질화해 평균 금액으로 따져본 결과, 2008년에는 지원 비율이 76%였지만, 2020년에는 65.2%로 떨어졌다. 연간 지원금액 역시 같은 기간 251만4000원에서 207만1000원으로, 17.6% 감소했다.

판매된 자동차 100대 중 13대는 전기차

전 세계에서 올해 등록된 자동차 중 전기차 비중이 13%라는 집계게 나왔다. 판매된 자동차 100대 중 13대는 전기차라는 의미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다는 지표다. 미국 전기차 전문 매체인 클린테크니카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9월까지 전 세계에 등록된 신차 중 13%는 전기차로 집계됐다. 지난 9월에는 배터리 기반 전기차 등록 대수가 104만대로 처음으로 월간 100만대를 돌파했다. 104만대는 월간 판매된

전체 자동차 중 17%에 해당하는 수치다. 클린테크니카 집계를 따르면, 지난 9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모델은 테슬라 모델Y, 2위는 테슬라 모델3이다. 3~8위까지는 중국 업체인 비야디(BYD)와 홍콩이 싹쓸이했다. 9위는 폭스바겐 ID.4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는 7595대로 14위를 차지했다. 기아 EV6는 6480대 팔렸다. 중국 업체를 제외하곤 테슬라가 전기차 상위권을 차지하고, 폭스바겐과 현대차그룹이 경쟁하고 있다.

실질 임금 5개월 연속 마이너스

고물가의 영향으로 국내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5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9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70만2000원으로 1년 전(352만1000원)보다 18만1000원(5.1%) 증가했다. 하지만 물가를 반영한 8월 실질임금은 340만8000원으로 1년 전(342만7000원)보다

1만9000원(0.6%) 감소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93(2020=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6%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과 7월엔 각각 6.0%, 6.3%를 기록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후 상승세는 다소 둔화했지만, 고물가로 인해 실질임금은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했다.

‘탈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될 듯

우리나라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한국의 탈춤'을 심사해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다. 최종 등재 여부는 11월 28일부터 12월3일까지 모나코에서 열릴 '제17차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탈춤'은 우리나라의 22번째 인류무형유산이 될 가능성이 생

겼다. 한국의 탈춤은 가무(歌舞)와 연극의 성격을 모두 가진 종합 예술로 평가받는다. 부조리한 사회 문제들을 풍자와 해학을 담아 공론화하는 예술적인 특징을 가졌다. 국가무형문화재로는 양주별산대놀이,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 강릉단오제 중 관노가면극, 북청사자놀이, 봉산탈춤, 동래야류, 강령탈춤, 수영야류, 송파산대놀이, 은율탈춤, 하회별신굿탈놀이, 가산오광대 등이 있다.

월드와이드 신문을 정기구독하세요

유익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월드와이드 신문이 정기구독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꾸준히 원하는 장소에서 월드와이드 신문을 받아 보고 싶으신 분은 월드와이드 신문 블로그(<http://blog.naver.com/wwwpublish/>)에 방문하셔서 <정기구독>란에 비밀글로 주소를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매월 신문이 발행되면 제일 먼저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심장, 동장군의 공격을 조심하라

찬바람이 불면 종종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질환이 있다. 바로 심뇌혈관질환인 심근경색과 뇌졸중이다. 지난 10년간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에 높게 나타났다. 기온이 내려가면 몸의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예방과 관리, 조기증상 등을 미리 알고 대처요령을 살펴본다.

심뇌혈관질환 주의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 혈관이 평소보다 수축하고, 심장이 뛰는 속도가 빨라져 혈관이 막히기 쉬워진다. 평소보다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뇌졸중 등을 주의해야 한다.

유럽심장학회 연례 회의(2022)에서 노르웨이 오슬로대 연구팀은 기온이 10도 떨어질 때마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19% 높아지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에서 집계한 사망 원인 자료를 보면 2020년 인구 10만 명당 심장질환 사망자는 63명으로 사망 원인 2위, 뇌혈관 질환 사망자는 42.6명으로 4위에 올랐다. 진료비도 심뇌혈관질환이 압도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심뇌혈관질환은 심장과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거나 혈류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 혈관이 파열돼 발생하는 모든 질환을 말한다.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 심장 혈관(관상동맥)이 좁아져 혈류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협심증,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된다. 심뇌혈관질환은 대부분 예고 없이 찾아온다. 심장과 뇌의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고 터지면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뇌와 심장의 세포가 죽기 때문에 심뇌혈관질환 관리가 필요하다. 찬바람이 불면 주의해야 할 질환은 돌연사의 주

범인 심근경색이다. 날씨가 쌀쌀해지면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혈압이 상승한다. 혈관이 갑작스럽게 수축되면 혈액이 지나가는 통로가 그만큼 좁아져 심장운동 장애를 일으키거나 심할 경우 심장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되어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다. 날씨가 추워지거나 과격한 운동을 할 때 심근경색, 부정맥, 폐색전증 등에 의한 심장마비(급성 심정지)가 종종 발생한다.

심뇌혈관질환 관리가 필요한 사람

- 고혈압 · 당뇨병 환자
- 심뇌혈관 질환 가족력 혹은 병력이 있는 사람
- 흡연자
- 이상지질혈증 환자 등의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군

심장마비와 심정지, 어떻게 다른가?

심장마비와 심정지는 혼동하기 쉽지만, 의학적으로 다르다. 심장마비는 혈액순환의 문제로 심장의 근육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힐 때 발생한다. 막힌 혈관 탓에 산소와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심장 세포가 사멸하기 시작하면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 가슴 통증, 호흡곤란, 어지럼증, 메스꺼움, 심한 무기력이나 피로감 등이다. 그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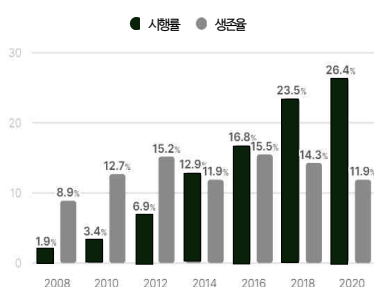
여전히 심장은 뛰고 의식은 있는 상태다. 반면 심정지는 심장의 전기 신호에 문제가 생겨 갑자기 박동을 멈춘 상태다. 심정지가 오면 갑자기 쓰러지거나 기절하고 호흡이 멎을 수 있다. 이때 입술과 손발이 창백해지는 특징을 보인다. 심장이 멈추면 뇌를 비롯한 여러 장기에 산소 공급이 중단돼 기능을 못한다. 이 상태가 3~5분 넘어가면 뇌에 손상을 입는다. 그 이상 지연되면 사망한다. 생존율이 낮고, 생존한다고 해도 뇌 손상에 의한 장애 같은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비율이 매우 낮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의 병원 도착 시점 생존율은 9.4%, 퇴원시 생존율은 3.0%이다. 이중 뇌 기능 회복률은 0.9%에 불과하다. 심정지 환자는 1분 1초가 중요하다. 발생 동시에 의료진을 부른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 심장마비가 반드시 심정지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심정지가 왔다면 심장마비가 원인일 수 있다. 심장마비 때문에 제대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손상된 심장 근육이 경련을 일으켜 심실세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심장마비와 심정지는 관상 동맥 질환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두 질환의 원인 역시 비슷하다. 심장마비 치료는 심장마비가 일어난 후 6시간 이내라면 혈전을 녹여주는 약물로 막혀있는 관상동맥을 뚫는 치료를 시행한다. 약물 대신 관상동맥 성형술로 치료할 수도 있다.

심폐소생술(CPR) 생사를 가른다

심폐소생술 시행순서

- 1 확인 ▶**
어깨를 두드리며 반응을 확인한다.
- 2 신고 ▶**
119신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요청하고 호흡을 확인한다.
- 3 압박 ▶**
분당 100~120회로 강하고 빠르게 30회 압박한다.
- 4 호흡 ▶**
기도를 열고 가슴이 부풀어 오르도록 2회의 인공호흡을 한다.
- 5 반복 ▶**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30:2로 119 구급대원이 오기 전까지 반복한다.
- 6 AED**
자동심장충격기가 도착하면 기계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2008~2020 심폐소생술의 일반인 시행률



자료: 질병관리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성인	소아	영아
심정지의 확인	무반응 무호흡 혹은 심정지 호흡 10초 이내 확인된 무맥박(의료제공자만 해당)		
심폐소생술의 순서	가슴압박 - 기도유지 - 인공호흡		
가슴압박 속도	분당 100~120회		
가슴압박 깊이	약 5cm	가슴 두께의 최소 1/3 이상(4~5cm)	가슴 두께의 최소 1/3 이상(4cm)
가슴 이완	가슴 압박 사이에는 완전한 가슴 이완		
가슴압박 중단	가슴 압박의 중단은 최소화(불가피한 중단은 10초 이내)		
기도유지	머리 기울임-턱 들어올리기		
가슴압박대 인공호흡 비율	전문기도 확보이전	30:2	30:2(1인 구조자) 15:2(2인 구조자, 의료제공자만 해당)
	전문기도 확보이후	가슴 압박과 상관없이 6초마다 인공호흡	
일반인 구조자	가슴압박 소생술	심폐소생술	

성경은 정말 오류가 없는 책인가?

1960년대에 나사의 과학자들이 행성의 궤도를 연구하다가 하루가 없어진 걸 발견했는데, 그 시점은 B.C.1400년경 여호수아 시대였다는 이야기가 한때 널리 회자되었다. 교회 안팎으로 큰 화제가 되자 나중에 나사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특정한 때의 시간이 비었다는 것을 계산하거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결국 실종된 하루에 대한 이야기는 뜬소문에 불과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지금은 터무니없는 낭설로 취급받고 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수 10:12-14)의 역사성마저 낭설로 취급받아도 좋은가 하는 것이다.

성경에 오류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려는 성경 무오성 논쟁도 결국 이런 난제를 비껴갈 수 없다. 복음주의 안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무오성’과 ‘무류성’의 입장이 대립해 왔다. 무오성은 성경에는 신자들의 믿음과 실천뿐만 아니라 역사나 과학 등과 관련된 내용에서도 오류가 없다고 믿는 입장이고, 무류성은 성경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신자들의 믿음과 실천의 영역에만 국한시키는 입장이다. 창세기 1-2장의 해석을 놓고 벌어지는 최근의 유신진화론 논쟁도 결국 성경 무오성과 무류성 간의 싸움이다.

성경 무오성 논란의 중심, 시카고 성경 무오선언서

1978년에 북미의 복음주의자들이 시카고에 모여 발표한 ‘시카고 성경 무오선언서’는 성경 무류성이 아닌 무오성의 입장을 확고하게 천명한 기념비적 문서로 잘 알려져 있다. 모두 25항으로 구성된 이 선언서에는 프란시스 웨퍼, 제임스 패커, 노먼 가이슬러, 제임스 보이스, R.C.스프로울 등과 같은 당대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서명에 참여했고, 그런 만큼 복음주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다. 그러나 이 선언서의 내용에 동의하느냐 않느냐로 복음주의자와 비복음주의자, 때론 과당적으로 아군과 적군을 구별 짓는 정치적 무기로도 이용되면서 지금까지 성경 무오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성경 무오성에 대한 다섯 가지 복음주의 입장

<성경 무오성 논쟁>이란 책의 기고자들이 성경의 무오성 문제를 놓고 각각 내세우는 자신들의 복음주의적 입장 가운데 무오성과 무류성의 특징을 구분짓게 해 주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첫째, 알버트 몰러(남침례신학교 총장)는 성경 무오성의 근거로 내적 증거(벧후 1:21), 교회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호해 왔던 역사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지켜야 하는 교회의 실질적인 필요를 든다. 둘째, 피터 엔즈(이스턴대학교)는 <성경 무오성 논쟁>에서 성경 무오성 교리에 가장 분명하게 반대하는 해체주의적 입장을 보여준다.

셋째, 호주 신학자인 마이클 버드(퀸즈랜드대학교)는 미국의 무오성 교리가 미국 바깥의 복음주의를 위해서

는 불필요하며, 규범적인 교리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넷째, 케빈 밴후저(트리니티 복음주의신학교)에게 무오성은 성경의 난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다만 ‘진리는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믿음의 확신을 표현한다. 다섯째, 존 프랭키(엘로스톤신학교)는 성경의 영감과 증거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말과 언어라는 피조된 통로를 사용하셨다고 해서 성경이 신성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태양이 멈춘 이야기, 얼마나 신빙성 있나?

서두에 소개한 여호수아 10장의 기적 이야기에 대해 무류주의자들은 역사성에 물음표를 던진다. 천체의 운행질서에 묶인 지구가 어떻게 저 홀로 멈출 수 있는가에 대한 과학적, 합리적 의심 탓이다. 이런 태도는 이 책에서 창세기 6장에 있는 노아 홍수 사건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브라이언 맥라렌에게 이르러서는 심각하게도 왜곡된 신론의 문제와 정면으로 맞닥뜨린다. “유례없는 대량학살로 이끈 의도적이면서도 초자연적인 재앙을 명하신 하나님은 믿을 가치가 없으며 경배할 가치는 더더욱 없다.”(브라이언 맥라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거짓 없는 역사성이 기본적인 배경이어서다. 역사라는 시공간에 펼쳐진 사건들에는 과학적 검증이 따르기 마련이다.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과학적 검증이 어려운 경우 기적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될 경우, 그가 허용하시는 기적은 과학보다 항상 더 크다.

지구의 자전 속도는 시속 1,600킬로미터, 공전 속도는 시속 10만 7천킬로미터다.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 지구가 갑자기 멈추게 될 경우, 원심력과 중력의 변화로 땅 위의 사람들이 공중에 붕 떠 버리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태양이 갑자기 딱 멈춰 버린 게 아니다.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수 10:13)고 말한다. 지구가 아주 천천히 돌아가게 하면서 운동하던 물체가 급정거할 때 생길 만한 관성의 법칙에 따른 충격을 최대한 완화시키셨을 것이다.

하나님에게 큰 기적은 어렵고 작은 기적은 쉬운 경우는 따로 없다. 하나님은 정교한 과학의 법칙들을 천히 다 만든 분이셔서, 그 과학 아래 계시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해 존재하시며, 임의로 행하실 수 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현재까지 발달해 온 과학이라면, 그 기준 자체가 이미 완전하지 않다.

이 책의 기고자들도 여리고 성 붕괴 사건을 놓고 고고학 자료와 성경이 실제로 발생했다고 말하는 부분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 성경의 무오성을 어떻게 고수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성경의 우선성을 중시한다. “신앙이나 심지어 불신앙을 고고학 기록과 서로 연

결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기록들은 계속해서 학문적 수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마이클 버드)

무오성과 무류성, 어떤 관계인가?

과학적으로 불충분한 증거를 가졌다는 것이 반드시 증거의 완전한 부재를 의미하진 않는다. 성경은 태양이 멈춘 기적 사건의 특별한 역사성을 강조하려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수 10:14) 사건이라고 말한다. 이 사건은 이사야서(28:21)와 하박국서에 다시 언급된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이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합 3:11)

성경이 믿음과 실천에 있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할 만한 내용을 가진 책이라면, 그 역사적 배경이 되는 여러 기적적인 사건들을 포함하는 역사나 과학의 문제에서도 신뢰할 만해야 한다. 그 둘은 떼려야 뗄 수 없이 연관되어 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세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 경고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노아 홍수의 역사성을 전제한다(마 24:37-39).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안겨주면서 가나안 족속이 신으로 섬긴 해와 달에 대한 우상숭배의 죄를 드러내신 영적 교훈에는 해와 달을 멈추신 기적 사건의 역사성이 전제된다.

하나님은 안식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주려고 친히, “이는 옛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출 20:11)고 말씀하셨다. 6일 창조는 출애굽의 홍해 기적이든 여리고 성 붕괴든, 과학적인 근거가 아무리 미심쩍어 보이는 사건이라 해도 그 모든 역사는 기독교적 믿음과 실천의 문제와 곧바로 연결된다. 무오성이 전제되지 않고는 사실 무류성도 설 자리가 없다.

“만일 성경에서 진리와 반대되는 어떤 것으로 인해 내가 당혹스러워한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사본에 오류가 있거나, 번역자가 그 의미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거나 혹은 나 자신이 이해하는데 실패했다고 생각한다.”(어거스틴) “무오성이란 결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본질에 관한 그리스도와 사도의 가르침에 수반되는 믿음의 항목으로서 유지되어야 한다.”(제임스 패커)



안환균 목사

- 그말씀교회 담임, 변증전도연구소장
- <기독교 팩트체크>(두란노),
<하나님은 정말 어디 계시는가>(규장)

기독교의 핵심질문에 26권의 변증서로 답하다
(기독교 팩트체크)에서 발췌하였다.

Good News



당신을 참 행복으로 이끄는 리빙웨이

복음은 영어로 Good News입니다. 곧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에 대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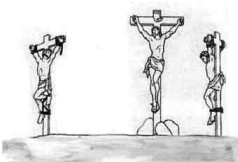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자신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인 참 생명의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마귀의 미혹을 받아 자기 욕망에 이끌려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와, 모든 사람이 그(죄)의 길을 따라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란, 나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 세상의 자랑을 좇아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무서운 심판과 영원한 사망을 낳게 합니다.

3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은 그 무지한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 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삯인 죽음의 형벌을 우리 대신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 그 죽음에서 먼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4



사람이 자기 뜻대로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죽음 후에도 자기 뜻대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듯이, 죽음 후에는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의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단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시어, 영원한 생명과 참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1			2		4		13		
		3		5					15
							11	19	
2	8			5		6			
			7					12	17
7			6	12					
	8	9					14		
					13	18			
10				11					16
		9				15			

가로문제

- 뜻하지 않게 생긴 불행한 변고
- 한데 쌓여 있거나 모여 있는 사물의 더미
- 쓰레기나 재활용품 따위를 종류별로 나누어 거두어 감
- 어떤 공통성이 있는 몇 가지 증후가 함께 나타나는 병적 증세
- 선로나 도로에 쌓인 눈을 치우는 차
- 보증인이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보증
- 아픔이나 괴로움 따위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실제 보다 보태어서 나타냄
- 부부가 합의나 재판에 따라 혼인 관계를 끊고 헤어짐
- 소리가 산이나 절벽 따위에 부딪혀 되울림
- 한 사람이 백 사람을 당해낸다는 뜻으로, 매우 용감함을 이르는 말

- 젓물을 입히지 않고 진흙만으로 구워 만든 그릇
- 자기의 허물이나 죄 따위를 스스로 고백함
- 음력 칠월 칠석에 견우와 직녀를 서로 만나게 하려고 까마귀와 까치가 은하수에 모여서 자기들의 몸을 잇대어 만든다는 다리
- 제일 앞에 진을 친 부대를 지휘하는 장수
- 재화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에 불을 끄는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
- 한 집단 안에서 특징의 사람을 따로 떼어 멀리하는 일

세로문제

- 회사의 사무실로 통근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서 회사의 통신 회선으로 연결된 정보 통신 기기를 설치해 놓고 근무함
- 동물의 꼬무나 몸뚱이의 뒤 끝에 붙어서 조금 나와 있는 부분
- 고체를 부스러뜨리는 기계
-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 중추 신경 기능을 억제하여 잠이 들게 하는 약
- 돈이나 물건을 빌려서 쓴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 담배를 끊음
- 남의 집에 얹혀사는 일
- 흔백이 사방으로 흩어진다는 뜻으로, 매우 놀라거나 혼이 나서 넋을 잃음을 이르는 말
- 그날에 할 일
- 한집안을 이루어 살아가는 일
- 서로 마주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
- 끼니 외에 떡이나 과일, 과자 따위의 군음식을 먹음
- 종교를 전도하여 널리 알림
- 오랫동안 자꾸 반복하여 몸에 익어 버린 행동

- 임금이 머리에 쓰는 관
- 강가나 바닷가에 흰 모래가 넓게 깔린 곳
- 이름을 지어 주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
- 물체가 빛을 가리어 물체의 뒤에 나타나는 검은 형상

<지난 11월호 정답입니다>

전	도		경	천	동	지		경	
	우		호			우		임	대
	미	장	원		번	개			진
		레		금	식		마	침	표
이	유	식		일			당		
모				봉	두	난	발		별
작	심	삼	일			장		차	명
	미		탈	곡		판	공	비	
해	안			마	약		무		
방		합	창	단			원	자	력

미로찾기



북한 복음화, 예배의 기름부음, 열방을 향한 뜨거운
선교비전, 차세대 리더십양육과 이 땅의 문화변혁의 리더십을
꿈꾸는 교회



월드와이드교회는 건강한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서울노회 소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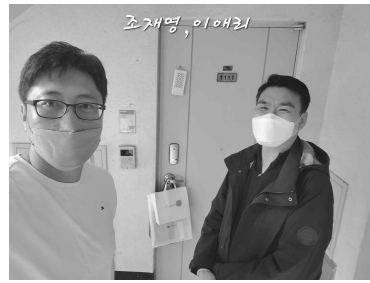
행복의 문을 여는 월드와이드 교회

구원을 위한 위대한 클릭! 들어오라! 예수님 품으로!



10월 15일/ 11월 5일

전교인 노방전도
문고리 심방



10월 23일 이벤트 데이



바리스타



스마트폰 활용



부평1순



삼산2목장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세례

중고등부 전준희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19년간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이제 정식으로 교인이 되기 위해 세례를 받으려 합니다. 세례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생각의 폭이 넓어지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실존하시는지, 성경이 정말로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에 비하면, 교회에서 말하는 기적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교회에서 조금씩 멀어졌고, 이대로 간다면 저는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떨어져 나갈 게 자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서히 사라져가던 저의 신앙은 2022년에 들어서면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대학 진학과 미래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던 도중, 우연히 캄보디아에서 활동하시는 송원식 선교사님과 박지흠 선교사님이 보내 주신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힘든 일상을 보내는 캄보디아 사

람들이지만, 제가 본 사진에서 그들은 모두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던 저의 마음속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보다 힘들게 생활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만약 하나님이 저들에게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신 것이라면? 저것보다 못한 나의 고민도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천천히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바쁘다고 내버려두던 성경을 다시 읽어보기도 하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세례학습을 신청하였고 1개월 동안 다른 친구들과 함께 꾸준히 세례학습을 받았습니다. 학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분이었고, 저를 괴롭히던 고민은 어느새 사라진 후였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탕아가 아버지께 받을 재산을 미리 받아 도시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 돈이 모두 떨어져 다

시 아버지께로 돌아가 자신을 하인으로 취급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시 돌아온 아들을 껴안으며 그를 씻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힌 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저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아버지입니다. 제가 세례를 받고 지금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

비전목장 구현운/손우수

사랑의 하나님, 저희 가정에 귀한 생명의 선물로 허락하신 하준이를 3년 동안 잘 키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미숙한 부모인 저희가 그동안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하준이의 맑은 눈동자와 순전한 미소를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생명의 신비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준이의 부모가 되어 아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느끼면서 저희를 향한 신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하준이가 주님의 자녀로서 택함 받아 믿음의 자손을 이어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시간 코로나로 인해 양육함에 어려움도 있었으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며 선하게 인도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이가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여호와이레’라는 뜻과 같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이를 통해 주님이 계획하신 뜻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이의 삶에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지혜와 은총이 넘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앞으로 아이를 양육하면서 부모인 저희의 생각과 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의 새봄을 열어주는 월드와이드 신문을 소개합니다

경제, 연예, 문화, 창조과학, 교육, 의학, 역사, 건강, 성공학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인 이슈를 선별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실으실 수 있습니다. (3면) 매월, 교회 주변의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대화의 문을 여는

창구의 역할이 됩니다.

-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손쉽게 들고나가 길거리 전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알찬 내용 자체가 유익을 주기 때문에 선물처럼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 편집, 발행, 배달까지 담당해 드리므로

편집부나 출판부가 없는 중·소 교회의 경우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 매월 최소 3천부에서 2만부까지 다양한 분량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
032-501-9686

월드와이드신문과 함께하세요

신문이 필요한 분은 10부, 20부, 50부, 100부씩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문대금은 받지 않으며 원하시면 후원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100-021-800947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와이드교회)

박인용 담임목사 주일설교 안내

• www.wwch.or.kr

•라디오 극동방송 Fm106.9

•GOODTV(매주 목요일 오전 5시, 매주 토요일 오전 5시 50분)

•C3TV 인터넷 방송

•C3TV 모바일방송 KTF**91-302n

•스카이라이프채널 Ch414

월드와이드교회 예배시간안내

	부서	시간	장소
새벽	월~금	오전 5:10	지하1층 분당
	토	오전 6:00	지하1층 분당
주일	1부(축재예배)	오전 8:45	지하1층 분당
	2부(축재예배)	오전 11:15	지하1층 분당
	3부(청년예배)	오후 3:00	지하1층 분당
	4부(테마예배)	오후 5:00	지하1층 분당
주중	화요중보예배	오전 10:15	지하1층 분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8:00	지하1층 분당
	목요심야기도회	오후 8:00	지하1층 분당
주일 랜드	영아부(해피랜드 1~4세)	오전 11:30	2층 해피랜드홀
	유치부(판타지랜드 5~7세)	오전 11:30	2층 판타지랜드
	유년부(드림랜드 1~3학년)	오전 11:30	3층 드림랜드홀
	초등부(조이랜드 4~6학년)	오전 11:30	3층 조이랜드홀
	중·고등부	오전 11:00	지하2층 블루오션홀
	청년(요셉/기드온)	오후 3:00	지하1층 분당
	영아예배	오후 2:30	지하2층 블루오션홀
국제 지역	미안마예배	오후 3:30	지하2층 블루오션홀
	카렌족예배	오후 1:00	지하2층 블루오션홀

월드와이드교회 오시는 길



축복의 불루오션
월드와이드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Worldwide Community Church

- 주소: (우)21343/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458-3 도로명) 인천 부평구 삼산동체육관로 82
- 전화: 032)501-9686~7
- Fax: 032)503-9686
- http://www.wwch.or.kr

2022 2차 세이레기도회

하나님의 새 환상의 주인공이 되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Once again I will yield to the plea of the house of Israel and do this for them
에스겔 36:37

코로나 이후 축복 · 복음통일의 허브축복 · 가문의 축복

11.27(주일)-12.18(주일)

월~금: 저녁 8시, 토: 오전 11시 / 본당

2022 성탄절

Blessed
Christmas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성탄감사예배 12.25(주일) 1-3부

Be Thankful to God!



행복의 문을 여는
월드와이드교회